



Shurjo • Keya • Joy • Alo • Bristy



목차

- 활동 일정
- 활동 모습
 - Farmer activities
 - Visit Sand/Coal collection area
 - Picnic in Dahapara
 - Visit Indigenous cultural academy
 - Observe Bangla New Year
 - Korean class
 - English class
 - Gardening
 - 환경의 날 / 350ppm 캠페인
 - Showing Environmental movie
 - Work to build Youth Forum member room/library
 - Dahapara NFPE School / Community visit with Dahapara Clinic staff
- 생활 모습
 - 여는 나눔, 닫는 나눔
 - 4월의 Keyword : 시작
 - 이번 달 hot topic



활동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Dahapara	2 •Farmer activities(join field work)	3 •Visit Sand/Coal collection area	4 •Dahapara	5 •Picnic in Dahapara	6	7 •Planning for Bangla New year
8 •Visit Indigenous Cultural academy	9 •Dahapara	10 •Making plan with Youth Forum members	11 •Dahapara	12	13 •Planning for Bangla New year	14 •Bangla New year
15 •Dahapara	16 •Dahapara	17 •Korean class	18 •Dahapara •English class	19	20 •Korean class	21 •English class •Showing Environmental movie
22 •Dahapara •English class	23 •Dahapara	24 •Korean class	25 •Dahapara	26 •Meet NCYB staff	27 •Work to build new youth forum member room/library •Korean class	28 •English class •Showing Environmental movie
29 •Work to build new youth forum member room/library •English class	30	•We do Gardening & Cleaning YMCA campus area everyday!				

활동모습



Farmer Activities

4월 2일

- ❖ West Utrail지역의 논에서 현지 기후에 알맞은 농사법과 작물 재배 방법을 익히고 체험하였다.
- ❖ 방글라데시는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리시리 지역에서는 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계나 화학 물질을 이용하진 않지만, 모종을 키워 모내기를 한 후, 강에서 양수기로 물을 대어 가두고 재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 Visit Sand/Coal collection area

4월 3일

- ❖ Birisiri와 Dugapur 사이에 위치해 있는 Sumsang River에 방문하여 강 바닥의 sand, coal 채집을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coal 채집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 강에서 석탄을 채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채집 방법을 체험하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도구를 이용해 강 바닥의 모래 속에서 석탄을 찾은 뒤 모아서 파는데,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평균 40kg이상, 운이 좋으면 80kg 정도의 석탄을 채집하고, 20kg에 100Tk(우리 돈 약 1500원)를 번다고 했다.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는 아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일 소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방글라데시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었다.





Picnic in Dahapara

4월 5일

- ❖ Brisiri YMCA의 모든 STAFF들, 그리고 Youth forum members와 라온아띠의 활동 장소인 Dahapara NFPE School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체육 대회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Visit Indigenous cultural academy

4월 8일

- ❖ Indigenous cultural academy를 방문하여 indigenous people의 역사, 특히 이 지역의 토착민인 Garo, Hajong 의 역사, 과거 생활 모습 등을 알아보는 시간과 전통 춤과, 전통 악기 연주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 과거에 Garo 족은 자신들만의 무속 신앙이 있었지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걸쳐 많은 Garo 족이 살고 있고,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이 곳에서 과거 Garo 족의 의, 식, 주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언덕에서 작물을 재배했다. 가옥 또한 바닥과 약간 떨어져서 짓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 또한, 작물을 먹는 동물을 감시하고 쫓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감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설치하고 동물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Observe Bangla New year

4월 14일

- ❖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달력으로 새해를 기념한다. 이슬람 달력으로 새해인 4월 14일에 수도 다카에서는 퍼레이드를 하는 등 축제가 열리고 비리시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장을 열고 축제를 즐긴다. 우리도 축제에 참가하여 방글라데시 전통음식을 함께 나누는 등 새해를 즐겼다.
- ❖ 오전에는 Compassion에 방문, 새해를 기념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전통 의상인 사리와 반자비를 입을 수 있었다. 또, Indigenous cultural academy 에서 culture program을 관람하였다. 오후에는 Youth forum member와 강 근처에서 열리는 시장에 방문하였다.





Korean class

04월 17일부터 매주 수, 토요일

- ❖ Birisiri YMCA Youth forum members를 대상으로 한글 자모음, 기본적인 교실 용어, 자기소개, 한글 카드를 이용한 간단한 단어들 수업을 하였고, 약 17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 중이다.





English class

4월 18일 부터 매주 일, 월요일

❖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study모임으로 Youth forum members와 RaonAtti가 함께 그날의 주제를 정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영어만을 사용하여 대화하며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있다.





매일 매일

Gardening

- 3월에 심었던 Ladies finger, Deng-ga, 고추, 콩 외에도 오이, 호박 등의 다양한 작물을 심었고, 매일 Youth forum members와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 주는 등 열심히 관리한 덕에 Deng-ga는 먹어도 될 만큼 자랐다.
- Papaya 나무, Bristy 나무를 포함한 다른 작물들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환경의 날 / 350ppm 캠페인

- ❖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 예정이다. 4월에 준비한 축제 당일 행사는 환경영화제와 부스를 계획했다.
- ❖ 환경영화제 - 환경의 날을 d-day로 정하여 한 주에 한편씩 환경에 관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환경의 날 준비
- ❖ 부스준비 - 환경의 날 당일에 부스를 설치해 쓰레기를 가져오면 꽃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기 위해 바퀴줄 꽃을 직접 심었다. 이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부스와 한국음식(식혜)을 나누어주는 부스도 계획했다.
- ❖ 홍보 - 환경의 날 홍보를 위해 망토와 옷에 부착 가능한 홍보물을 제작 예정



★ Showing Environmental movie

4월 2일부터 매주 일요일

- ❖ 350ppm의 일산화탄소로, 환경의 날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환경의 날을 D-day 로 정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Planet earth)를 노트북, 모니터와 스피커를 설치하여 YMCA 내에서 상영하고 있다.





Work to build Youth forum member room / library

4월 27일~

❖ YMCA 내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공간을 Youth forum members를 위한 방과 도서관으로 만드는 일에 RaonAtti 도 Youth members의 일원으로써 참여하였다.





Activities in Dahapara

매주 월, 화, 목요일

- ❖ Dahapara NFPE School에서 주 3회 수업 (영어, 수학, 체육, 음악 전과목을 class 2, 3 / class 1, baby로 Level을 나누어 진행)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Dahapara student들의 성향과 특징파악을 목적으로 가정방문도 약 2주간 진행하였다.



Family Visit For Dahapara NFPE School Student

04월 09일부터 약 2주간

- ❖ Dahapara NFPE School 학생들의 특징과 성향파악을 목적으로 약 2주간 팀을 나누어 한 팀은 수업진행 한 팀은 가정방문을 실행하였다.





Community Visit

04월 22일부터 매주 월, 화, 목요일

- ❖ Dahapara clinic의 의사,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사람들의 생활, 위생과 질병 상태를 조사하고 family plan 이나 AIDS, 말라리아 등의 질병 예방법과 손 씻기 등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생활모습



여는 나눔, 닫는 나눔

2013년 04월 1주차 여는 나눔, 닫는 나눔

Keyword

- 마을로 한발자국, 마을로 스며들기.
- 시작하기 : 우리가 맡은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 시작을 타이틀로, 프로그램의 시작과 마을관계의 시작,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으면 어떨까.
- 관계확장의 시작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Dahapara

- 아이들이 우리를 선생님으로 보기보다 신기한 외국인, 이벤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수업 중에 나와서 만져보고 뽀뽀하고 할 때 수업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수업이고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할 것 같다.
- 교실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부족함을 느꼈다.
- 영어 :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아. 가르치는 것보다 즐겁게 배우는 것에 중점 두면 어떨까?
- 체육 : 스포츠 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양보하기, 줄서기 등을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또, 처음에 준비 운동으로 수업을 시작하니 아이들도 즐거워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아 좋았다.

350ppm에 대한 회의

- 방글라데시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우리는 마을 어딘가에 꽃씨를 심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 350ppm 영화 상영과 콘서트를 하는 건 어떨까.



여는 나눔, 닫는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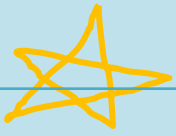
2013년 04월 2주차 여는 나눔, 닫는 나눔

Dahapara NFPE
School 가정방문

- 한집에서 오래 머물게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 나누고, 평소에 조용해서 잘 몰랐던 아이들의 이름도 외우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 처음에는 말이 잘 안 통해서 속도가 더뎠지만 점점 조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질문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선생님 의견은 학교에서 물어 볼 수도 있겠다..
- 안 좋은 가정 상황을 이야기 하는데 함께 듣고 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안 좋아져서, 어디까지 물어봐야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 상황까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다.
- 우리가 선생님이라서, 아이들과 관계 맺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선생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때문에 다른 두 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자습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선생님이 가정방문에 함께 해야 한다면 두 명만 가정방문을 가고 2명 팀원이 남아서 남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프로그램 시작

- 한국어 교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업하면 좋을 것 같아.
- 환경영화제 D-day 날짜랑 영화순서 짜서 공지하기.
- 다큐멘터리로 일단 환경 영화제를 시작하고, 구해지면 Wall-E나 Tomorrow 같은 영화를 환경의 날 때 상영하는 것으로 하자.
- 늦게 온 일꾼이에게 그 동안의 캠페인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자.



여는 나눔, 닫는 나눔

2013년 04월 3주차 여는 나눔 닫는 나눔

Dahapara

- 수학 : Baby class와 class 1을 함께 진행했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다. class 2는 구구단까지 가능.
- 영어 :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 영어 노래나, 동화책 같은 도구 활용할 생각이야.
- 체육 : 선생님 한 명이 진행하기엔 버거워, 두 명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 가정방문이 단기간에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줄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어.
- 잘 하는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을 더 봐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수업시간에 잘 따라오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 버리는 것 같다.

한국어 교실

- 메인 선생님을 다른 멤버들이 도와주면 수업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된다.
- 힘들더라도 조별로 책상을 나누어 놔으면 좋겠다.
- 늦게 오는 친구를 배려하느라 시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해보아야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수업 진행은, 전날 수업을 한번 복습한 뒤 오늘 배울 내용을 메인 선생님이 설명하고 보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연습하는 방식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Keyword '시작'

- 한국어 교실, English class 시작
- 350ppm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영화 상영 시작
- 늦게 온 일꾼이와 함께 마을 방문 해보자.

기타

- English class : 주제를 미리 정해서 말할 내용을 생각하고 가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 YWCA와의 연계 : YMCA 활동에 여성의 참여율이 낮는데, YWCA가 근처에 있기 때문일까? YWCA에 방문해 보고 싶어.
- 우리가 YMCA 안에서만 생활하고, 기독교인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이곳이 무슬림 국가라는 것을 잊고 지내는 것 같지만 바로 앞에 있는 시장만 나가도, 다양한 종교(무슬림, 힌두)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걸 느껴.

환경영화제

- 사람들이 늦게 와서 10분 정도 지연되는 동안, 오늘 볼 영화에 대한 소개와 관람 시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해 주면 좋겠어.
- 환경의 날까지 매주 일요일 D-day를 세자. 또, 영화 상영 계획과 우리의 목적 등을 큰 종이에 적어서 영화 상영 할 때 앞에 붙여놓자.
- 영화 상영 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설치해야 할 것 같아. YMCA에 없어서 빌려야 하지만, 우리 활동비를 쓴다면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해. 25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면이 작아서 집중이 잘 안돼.

350ppm

- 우리가 마시는 물이 담긴 페트병을 모아 잘라서 화분을 만든 다음, 그곳에 꽃씨를 심어서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 EM 원액을 이용한 활성액, 비누, 탈취제 등을 만들어 환경의 날에 나누어 주는 것도 생각해보자.
- 350ppm 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천을 망토처럼 두르고 다니면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아.
- Youth member들과 함께 350ppm 콘서트 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자.





여는 나눔, 닫는 나눔

2013년 04월 4주차 여는 나눔, 닫는 나눔

Dahapara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름을 부르면서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하루를 정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수업 말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만화를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재미없어했다. 하지만 꼭 수업 말고도, 하루 날을 정해서 다른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될 것 같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마을을 방문한 소감은, 의사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마을을 둘러보고, 놀다 온 기분이다. 우리도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 보건의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가야 할 것 같다.

펜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도착하는 데 3주 정도 걸리는데, 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어 교실

수업의 일부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 보고, 추첨을 해서 조를 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350ppm

-씨를 심으려고 퇴비랑 비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쯤 심을 수 있을까?
 -환경 영화제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350ppm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영화 상영 할 때 앞에 붙여 놓고,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스케줄에 넣고 싶은 프로그램

-Compassion :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 또, Youth member인 미텔이 Compassion 음악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도 궁금하다.
 -YWCA :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여성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여성들이 YMCA에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350ppm : youth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함께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태권도교실, 미술 교실.

Keyword

우리가 생각했던 '시작'이라는 keyword 속에는 관계 확장이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환경 영화제 전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마을로 나가 보자.



4월의 Keyword : 시작



- 저번 달이 방글라데시에 와서 비리시리와 친해지는 기간이었다면, 2달째인 지금은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시작해가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 처음은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최대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시작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의 키워드로 정했다.



가정 방문

아이들을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 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 가정 방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 하는지 등의 성향 파악과 함께 평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행동들이 가정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어렵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Korean class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Youth forum member들을 위해 한국어 교실을 이번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영어처럼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친구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어 보았다. 친구의 대답은 “우리가 Hello 보다 너모슈깁(안녕하세요) 이라고 인사 받았을 때 기분이 더 좋은 것처럼, 라온아띠 친구들에게도 안녕 이라고 인사해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 주고 싶고,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와 계속 연락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였다. 이런 친구들에게 문법보다는 회화 위주로 수업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표현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화제

영화제를 시작하는 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Youth forum member 중심으로 홍보를 한 결과 매번 상영 때마다 약 2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인원 수는 많은 데 비해 화면 크기가 작은 점이 아쉽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에 공감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HOT TOPIC I

현지Y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Host family에 잘 스며들기 위해 현지 물을 마실 것을 바란다. 하지만 현지 물에는 철 성분이 섞여 있기에 냄새도 다르고 마실 때마다 탈이 나는 단원들이 있기에 현지 물을 마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스며들기?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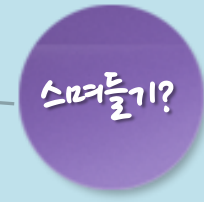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물갈이나 배앓이가 빨리 끝나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라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데 개인차가 있는 것 같다.

현지인 친구가 다른 현지인 친구에게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물을 뱉어버린 적이 있다. 호스트 패밀리에 갔을 때, 테이블에 내 물이 따로 있고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면 현지인 친구들과 있었던 일처럼 불편할 것 같다.

호스트 패밀리에 가서 적응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응 못하면 사 마실 생각도 하고 있었다. 우리만 미네랄 물을 마시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만 미네랄 물을 마시는 것이 스며들기에 벽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든다.

처음엔 정수된 물이 아니라 현지 지하수 물을 마셔서 더 거부감이 느껴졌었던 것 같다. 물 문제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현지 친구가 "빨리 현지 물 먹어." 이렇게 다그치면 서로 마음이 상한다.

건강상에 문제가 없고, '철' 성분을 걸러낸 정수된 물만 책임져 주면 호스트 패밀리에서 물 마실 때, 현지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스며들기'라는 말이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줄 때 '스며들기'가 되는 것인지, 내 상황에 맞지 않음에도 사람들에게 맞춰나가면서 어울리는 것이 '스며들기'인 것인지 '스며들기'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나는 지금 자원 활동하러 왔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충분히 감수할 마음으로 하러 온 것이 아닌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현지 친구들이나 간사들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아도 될 때 스며들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뭐 하나 사명을 때, 생각하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스며들러 왔으니까 이 곳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게 스며들기 아닐까 생각한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것은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다. 하지만 물 문제처럼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스며들기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픈 것뿐 아니라 눈치 보이는 기분을 느끼며 불편하더라도 잘 스며들어야지 하면서 참아야 하는 지 고민이 된다.

나는 자원활동 왔다는 생각보다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자원활동 하러 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도 못 먹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취향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아는 물갈이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며칠 안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라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들지 않았다. 또, 맞춰준다는 말은 내가 잘나서 맞추는 것이 아닌 그 친구들과 비슷하게 다가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춰주는 것이라는 단어보다 다르니까 더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물도 취향이 될 수 있을까?



Hot Topic 2

처음 BIRISIRI에 왔을 때와 두 달 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처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다. 내가 살던 곳 같은 느낌이 든다. 이곳에 와서 많이 생각한 것이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신경 쓰다 보니 이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 같다고 느껴진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익숙해지는 것의 장점은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지만, 단점은 자칫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 같다. 지금 나는 항상 '사람'에게 잘하자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Keya

나는 지금 팀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는 설렘보다 걱정이 더 많았다. 팀원들을 보고 더 걱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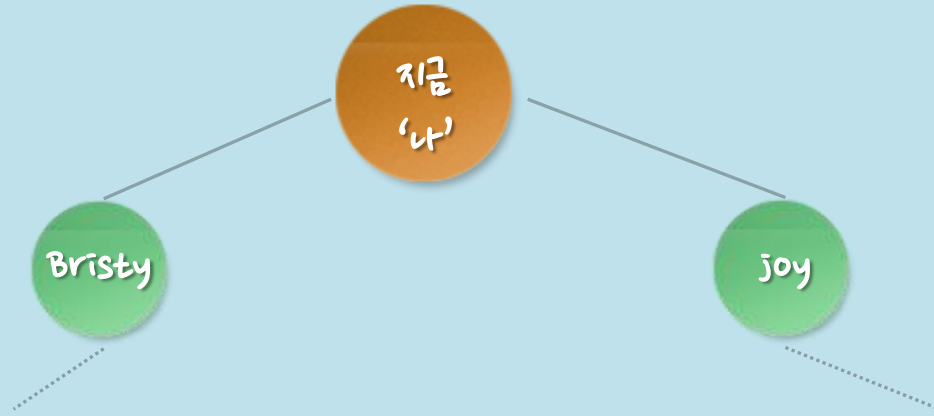
함께 생활하는 고민, 현지인들과 소통의 고민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의 궁핍함, 문화, 종교, 환경의 고민.

Shurjo

Alo

지금
'나'

나는 이게 봉사활동을 온 것이 아니라 지역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늦게 온 슈르조가 멤버들보다 유스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왜 걱정하는 것인지 이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유스들과 친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멤버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었지만 슈르조가 우리보다 늦게 와서 유스들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나는 멤버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더 썼었고, 지금은 유스들과 다시 어울리려고 한다. 유스들은 우리가 마을로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자연스럽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생활 중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 운동을 하는 것 같다는 알로의 말처럼 나도 내가 이곳에 자원봉사를 왔다는 생각보다 그냥 이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사 온 아이들보다 '저기에 살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라고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캠페인도 우리가 봉사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알리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 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즐기며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무언가를 이뤄내야겠다는 마음보다 크다. 지금 나는 내 상황에 상관없이 이곳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나는 항상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고 꿈꿔왔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장소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곳의 풍경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이런 말들이 상투적일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즐기고 돌아가서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팀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하게 된 것이 요리였다. 몇 번하던 것이 재미있어졌고 팀원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좋았다. 팀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 해보려고 한다.



HOT TOPIC 3

벌써 활동의 중간 지점에 와 있는 우리.
우리의 모든 활동이나 관계를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드로그 램도 있지만 마음인 것 같다.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마음먹었던 것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라온아띠로 살다가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

끝마무리

나는 처음 올 때부터 끝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지내다가 돌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

남은 시간도 끝마무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무리만큼 중요한 것 같다. 또, 우리가 웃으면서 헤어지기 위해서 운동회를 계획하는 것처럼

유스들이 전 기수에게서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면서 '너도 가면 우리를 잊을 거지?' 하면서 말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우리 또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질 텐데, 이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스들이 서운함을 느낀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떻게 해야 어떻게 관계를 지속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점점 전 기수의 이야기를 적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 후에도 지금 우리를 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결코 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의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쉽게 알고, 소식을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 유스들이 페이스북 북을 할 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 없다는 말에, 우리가 페이스북 북에 글을 올릴 때, 영어로도 함께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끝마무리

관계

다하파라 스쿨 아이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많은 것
을 받고 치유 된다.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끝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든다. 아이들이 '너희 같
것이니깐 안 좋아.' 라고 말할 때.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방글라데시에 왔을 때 온지 며칠이 됐는지를
적었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적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고 더 즐
기게 되는 것 같다.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중요한 것 같다. 여기 한마디만 더. 이곳에
머무를 때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가야 후회하
지 않고 돌아갈까. 생각하자. 끝을 기념으로 운동회를 열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생활하면서 천천히 다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직
시작도 안 한 호스트 패밀리도!

우리가 잘한 만큼 남을 것 같다. 정말 보석 같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자.



ধন্যবাদ

Thank you😊

RaomAtti